

농산물 안전 분석실 구축 공모사업 선정... 12억5000만원 확보

진도군, 2022년까지 2년간 총 25억 투입

30여종 분석 장비... 320가지 성분 분석

진도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1년 농산물 안전 분석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신청해 이번에

진도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 지역 내 로컬푸드와 학교 급식 납품 농산물, PLS 시행대비 농산물 재배·유통단계 안전성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기

반 구축으로 보배섬 진도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12억5,000만원 등 총 25억원을 들여 300㎡(2층) 규모의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구축하고, 30여종의 분석 장비로 320가지 성분을 분석하게 된다.

현재 국가에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시행 중에 있어 작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적용대상 작물이 아닌 농약을 살포할 경우 0.01ppm 이상 검출되면 농산

물의 출하연기, 폐기처분, 과태료처분 등 해당 농가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 분석실 사업 시행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배섬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종합검정실(토양검정, 쌀 품질분석)과 더불어 안전 분석실 설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학영농 기술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군, 추석 '이동 멈춤' 운동 전국적 이슈

전국 6개 시·도 향우회와 캠페인 전개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이동 멈춤'은 무엇보다 군민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군은 지난 7일부터 관내 사회단체는 물론 전국 6개 시·도 향우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2일에는 완도군청년연합회에서는 지역 상가, 학원 등 방역 활동과 함께 '이동 멈춤' 캠페인을 펼쳤고, 16일에는 완도군번영회, 25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25일 (사)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에서 동참하여 코로나19로부터 고향 지키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한편 15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19개 권역에 완도군

공직자 총 300여 명이 투입되어 마스크 착용 현장 지도·점검 및 귀성·귀경성 자제 협조를 당부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12개 읍면에서는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귀성·귀경성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동을 멈춰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고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추진하는 별초 대행 서비스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지원하거나 안부 동영상 촬영하여 자녀에게 전송하는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도 실시 중이다.

홀로 계산 어른식 700세대에는 추석 명절 음식 나눔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흥군, 코로나19 차단 별초대행 서비스 추진

추석 명절 이동자제 당부

올해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장흥군은 공설공원묘지와 지역 공동묘지에 별초대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별초를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움직임을 따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을 위탁받은 장흥군농민회는 50여명이 14일부터 공설공원묘지(103,916㎡) 6,858기, 공동묘지 무연분묘 100여기를 별초하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14일 장흥군농민회와 함께 직접 별초에 참여해 추석 명절 이동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출향 향우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공설공원묘지 별초 추진 사항과 고향방문 자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중순 군수는 "추석 명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초 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춰 별초를 진행중이니, 올해 추석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해남농산물가공지원센터, 소규모 가공 농가 창업 요람

분말과 과립·즙·잼 등 54종 가공장비 갖춰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소규모 가공 농가의 든든한 창업 요람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내에 신축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농산물을 분말과 과립, 즙, 잼 등으로 가공할 수 있는 54종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다.

센터에서는 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가공분야에 도전하지 못했던 소규모 농가가 기술지원을 받아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땅끝이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을 등록해 '땅끝이랑' 공동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농가의 가공품 생산도 활발해 지고 있다.

올해는 무화과잼(행복한무화과, 담이네농장), 새싹보리분말(황산 연호마을), 초당옥수수농축액(달콤), 시황차(나무), 백향과정(담이네농장) 등을 가공 상품화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했다.

특히 땅끝이랑협동조합 이신영 회원은 초당옥수수 농축액 반가공제품을 음료회사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김선옥 회원은 무화과잼과 백향과정, 오크라차를 생산하여 해남농협 하나마트 로컬푸드 매장에 제



품을 꾸준히 납품함으로써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재미속 회원은 미숫가루 등으로 군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 입점하고, 전라남도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 25종의 농산물 가공품을 상품화해, 올해 매출액이 1억원을 돌파하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강진군, '집콕 캠핑' 실시

강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 대상

강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따라 가족간 지지를 응원하고자 한부모가족 대상 비대면 '집콕 캠핑'을 실시했다. '집콕 캠핑'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관내 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출 및 여행 자제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자녀 양육돌봄의 빈 공

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실시됐다. 집안이나 옥상, 마당 등에서 텐트와 가랜드, 꼬마 전구로 집안을 캠핑장으로 꾸미는 한편 캠핑 음식세트 등 캠핑 키트를 배부했다.

조성옥 센터장은 "가족 역할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며 안전한 하고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마련



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흥군, 농림부 '깨끗한 축산농장' 4곳 추가 지정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4곳의 축사가 추가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의 사양관리, 환경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가를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장흥군 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18개소로 늘었다.

장흥군은 계속해서 축사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악취발생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축사주변 경관과 내·외

부의 청결 상태를 평가하여 70점이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법,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한편,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선선정 대상으로 선정되는 혜택을 받는다.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